



# 아기는 수제자 위빠사나 한다해도 격려해 주겠다

## 고우 스님

간화선 수행자 고우 스님과 위빠사나 수행자 파욱 스님이 만났다. 간화선과 위빠사나 국제연찬회가 4월 8~10일 공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개최됐다. 전통불교문화원(본부장 혜오)과 조계사 선림원(원장 토진)이 개최한 연찬회에서는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간화선과 위빠사나 수행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연찬회는 8일 파욱 스님과 9일 고우 스님의 법문과 질의 응답이 진행됐다. 마지막 날에는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깨달음의 사회화'에 대한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찬회는 두 수행자를 통해 북방불교와 남방불교, 초기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자리였다.

고우 스님은 <금강경> <사경> 등의 대승경전과 선어록, 중국 조사의 일화 중심으로 법문을 펼쳤다. 스님은 또 수행에 대해서도 "복잡하게 공부할 것 없다"며 화두참구에 매달릴 것을 주문하고, 견성의 지름길은 간화선임을 강조했다. 고우 스님은 첫 날 진행된 파욱 스님의 법문은 물론, 참가자들의 질문과 응답 시간에도 끝까지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스님은 "위빠사나 수행도 여러 수행 중에 하나이고 수승한 법이다. 간화선 유일주의를 표방하거나 위빠사나 수행이 부처님 원음에 가깝다는 우월감을 갖는다면 진정한 불교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장 아끼던 제자가 위빠사나 수행을 하겠다고 떠난다고 해도 스님은 "방법은 다르고 지향하는 것은 같기 때문에 격려해 줄 것"이라며 위빠사나 수행을 100% 인정하는 통 큰 자세를 보였다. 법문 중에는 자살·정치의 비리·전쟁·가정생활·개인 사업 등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는 모습에서 대승불교의 특징을 엿볼 수 있었다.

### #간화선 진리에 도달하는 길 가운데 하나일 뿐

부처님 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진리입니다. 간화선은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간화선이나 그 방법 중에 하나이고 전체일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생활 속에 선을 수용해 살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들은 나와 너라는 상대적이고 한정된 생각과 사고를 합니다. 한정된 세계에서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면 싸우기도 하고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 모두 상대적이고 한



정된 사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고 속에서는 절대 행복해 질 수 없음을 인정해야 부처님 법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이고 유한한 세계에서 사고하면서 행복해지기 위해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행복을 위해 전쟁을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이고 한정된 사고 속에서는 절대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고가 변해야 합니다.

밖으로 행복을 찾고 조건을 구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행복해진다면 왜 부처님이 출가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밖에서 행복을 찾았지만 역기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는 소리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추구는 하되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발견한 세계로 마음을 바꾸면

가질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역기능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에 우열을 따지 않고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발견한 사회이고 공정한 사회입니다. 부처님의 세계는 상대적이고 유한한 세계에서 절대적이고 무한한 생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 #생활 떠난 불교는 없다

생활을 떠나서 무슨 불교가 있겠습니까. 선종(禪宗)에서는 일상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평상심(平常心)이라고 합니다. 평상심이란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잔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개인의 고뇌에서 벗어나 카스트 제도에 의해 핍박 받는 중생들을 보고 제도의 모순된 점을

봤습니다. 출가한 동기 자체가 중생들의 생활에 있습니다.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개인은 물론, 사회, 국가 간에도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스님들은 사회와 중생의 행복을 위해 평생 목숨을 바쳐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출가한 것입니다. 불교를 전 세계에 포교하는 것도 불교의 사회화입니다. 지혜의 눈을 뜨게 해서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삶은 살도록 하고, 사회도 그렇게 되도록 할 때 전쟁 같은 것이 평화적인 세상을 만들게 됩니다. 대표적인 대상이 고위 공직자들입니다. 그들이 지혜의 눈으로 개인적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물론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도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위공직의 자리가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는 수단인 국가

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도 사회화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럴 때 개인의 행복은 물론 국가의 발전도 역기능 없이 이뤄집니다. 고위 공직자가 마음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개인이 아무리 잘한다 해도 공직자 개인에 의해 사회가 잘못될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직업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고, 자기가 하는 일에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지혜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불교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세속적으로 달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 #위빠사나와 간화선 목표점은 같다

초기불교가 서쪽에서 오르는 것이라면 대승불교는 동쪽에서 오르는 것입니다. 목표점은 같습니다. 서쪽은 평탄하면서 길이고, 동쪽 길은 짧지만 평장히 경사진 길입니다. 서쪽 길은 손 붙일 때도, 발 붙일 때도 있습니다. 짧은 길 힘들게 가는 것과 평탄한 길을 안전하게 가는 차이입니다. 짧은 길을 힘들게 가는 것과 평탄한 길을 안전하게 가는 것과 평탄한 길을 안전하게 가는 차이입니다. 동쪽 길은 돌아갈 수도 없고, 발을 옮길 수 없는 공간을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좁은 공간에서는 너와 나라는 것이 없습니다.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면 죽는 것이 아니라 삼라만상의 다른 생각과 피부, 이데올로기, 종교가 융합됩니다.

위빠사나 수행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한국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간화선입니다.

간화선이 절대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도 상대적이고 유한한 세계에 갇힌 것입니다. 입으로는 선(禪)을 이야기 하면서 마음은 갇힌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선과 위빠사나 모두 평등합니다. 음식을 먹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듯 좋아하는 수행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선이라는 음식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음식을 열심히 먹을 뿐이요, 열불, 봉사 보살행도 그것이 맞는 분은 하면 됩니다. 위빠사나라는 음식이 자기 입맛에 맞으면 그것을 먹으면 됩니다.

우열을 따지면 선도 모르고 위빠사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우열이나 차별 없이 무한하고 절대적인 세계로 바꾸고, 소통 하고 갈등 대립 전쟁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본 뜻을 또 모르고 비난하고 차별한다면 부처님의 길만 보고 내용물을 보지도 않고 싸우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사고로 이 자리에 있지 말고, 사고의 전환을 이루길 바랍니다.

###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부처님은 형상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존재는 연기로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연기를 보는 사람은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사람은 여래를 본다고 했습니다. 본래 존재하기를 다 완성된 존재입니다. 너 안에 있는 보물창고는 놔두고 왜 밖으로 찾다니느냐 하는 것,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것이 대승불교의 특징입니다. 본래 부처인지 모르는 것은 상대적이고 분별하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연기(緣起)와 법(法), 여래(如來)는 하나입니다.

### #화두는 수수께끼가 아니다

화두공안은 수수께끼와는 다릅니다. 수수께끼는 상대적이고 유한한 세계에서도 해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두는 유한하고 상대적인 세계에서는 절대 해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화두는 절대적이고 무한한 세계에 가지 않으면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화두는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고 일러준 것입니다. 깨닫지 않으면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못 깨달았으니 차선책으로 의심해서 풀어나가는 것을 간화선이라고 이해하면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쉽게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화두 타파가 안 되더라도 중간 중간 많은 변화가 옵니다. 가슴으로 느낌으로 오든 어떤 형태로든 사람마다 조금씩 변화가 옵니다.

이상연 기자

### 고우 스님은...

1937년 성주에서 탄생, 1961년 청암사 수도암 범의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관음 스님으로부터 <기신론>을, 고봉 스님으로부터 <금강경>을, 흔해 스님으로부터 <원각경>을 수학했다. 묘관음사 선원에서 첫 안거를 한 이후 봉암사, 죽서사, 김용사, 용주사 등의 제법선원에서 평생을 참선수행으로 일관했다. 1968년 구산선문과 봉암사 결사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선원을 재건해 조계종 종립특별선원의 기틀을 닦았다. 전 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 문화 각화사 태백선원 선원장을 역임했다. 2007년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추대,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를 품수했다. 지금은 봉화 문수산 금봉암에 주석하며 간화선의 대중화와 생활 화에 힘쓰고 있다.

##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 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 건물 한지붕 밑에 서로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

###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집구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흥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구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구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법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고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

###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운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보안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점, 방앗간, 공장, 주유소, 신세계로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평생부자지갑

##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

앞면  
뒷면

호신불규격 직경 : 3.5cm, 세로 4.5cm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마쳐!

## 자동차용 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영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영주는 부처님께 예를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 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

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일이 없는 오늘날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아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 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날리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툴 밑에 걸어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45,000원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